

## ■ 창조주 대신 엄마를 보냈다

탈무드에서는 엄마를 ‘집안의 영혼’이라 부른다. 유대인은 집안에 엄마가 없으면 그 집안에 영혼이 없는 것과 같다고 여긴다.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의미이다. 유대인만큼 엄마의 존재를 강조하고 존중한 민족은 아주 드물 것이다. 유대인이든 아니든 집안의 영혼이 엄마란 말에 반대할 사람이 있을까? 엄마는 집안 분위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다. 가끔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 탓에 집안 분위기가 좌우되기도 하지만, 요즘은 그런 경우가 드물다. 거의 대부분의 집안은 엄마가 좌우한다. 엄마가 우울하면 집안이 우울하고,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집안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엄마가 웃으면 집안이 웃고 엄마가 여유로우면 집안이 평안해진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다. “신은 이 세상 어디든지 있을 수가 없어서 대신 엄마를 보냈노라. 나는 등이 없기에 엄마를 보내서 너희들을 업게 하였노라. 내가 가슴이 없으므로 엄마의 가슴으로 너희들을 품에 안았노라. 내게 생명의 젖줄이 없기에 엄마를 보내어 생명의 젖줄로 너희를 길렀노라. 내가 따뜻한 손으로 너희들을 보살필 수 없기에 엄마를 보내서 엄마의 손으로 너희들을 기르도록 했느니라.”

엄마는 신을 대신하는 존재라는 뜻이 구구절절 내포되어 있다. 엄마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신을 대신하는 존재로 설명하는 것 이상의 표현이 어디에 있겠는가?

탈무드는 아내를 이렇게 설명한다. “아내는 가정을 의미한다. 이 말이 가르치려고 하는 의미는 남편의 가정은 아내라는 것이다.” 유대인 남편들은 아내를 ‘가정’이라 부르곤 한다. 유대인 아내나 엄마는 가정 그 자체라는 뜻이다. 또한 탈무드에서는 ‘아내는 남편의 집’이라고 했다. 사람이 거주할 집이 없으면 안정을 찾기 어렵

다. 남자는 아내가 없으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은 아내를 ‘나의 가정’이라고 부른다.

대부분 가정에서는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해 남편이 아내의 영향을 받는다. “아내,

엄마가 남편과 자녀들을 바른 말씀의 길로 이끌어 주며 격려해 준다면 여성은 일상 생활의 얽매임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찬사를 받는다.”고 탈무드는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아내, 엄마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유대인 엄마는 아이들이 아주 여럿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하나하나와 눈을 맞추며 대화를 나누었다.

유대인들에게 토라 두루마리는 매우 신성하고 중요한 것이다. 모두 서기관이 직접 양피지에 써야 하기 때문에 가격도 매우 비싸다. 그런데 이런 토라 두루마리를 팔 수 있는 조건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좋은 아내를 얻기 위해 돈이 필요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공부하는 일을 계속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 경우다. 이 두 경우 외에는 토라 두루마리를 팔 수 없다. 유대인들이 좋은 아내와 공부를 얼마나 중시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좋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라면 목숨처럼 아끼는 토라 두루마리를 팔아도 용서가 된다.

탈무드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인간은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정통파 유대인일수록 결혼을 빨리 하고 자녀를 많이 낳는다. 탈무드에는 결혼 적령기가 18세라고 나온다. 물론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찍 결혼하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정통파일수록 20세 전후에 결혼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피임은 신이 주신 선물을 막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그래

서 자녀가 열 명 이상인 경우도 많다.

탈무드의 이야기처럼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짝을 만나고, 짝을 찾아 주는 일일지도 모른다. 결혼을 한다는 것은 신비이며 축복이다. 어떻게 70억의 인구 중에서 둘이 만나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며, 자녀를 갖게 되는가? 35억의 선택 가능성 중에서 왜 그 사람을 선택하여 가정을 꾸리게 되는가? 이것이야말로 신비 중의 신비라고 생각한다면 부부는 서로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내 아내나 남편이 되어 준 것에 감사하고 다른 곳이 아닌 부부 사이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할 것이다. 행복은 가정이 시작이자 끝이다.

## ■ 베갯머리 교육도 하브루타로

서양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아이가 잠들기 전에 책을 읽어 주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서양의 문화가 아니라 유대인에게서 시작된 것이다. 베갯머리 교육은 유대인의 쉼마에 나오는 “누워 있을 때이라도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명령을 실천한 것이다. 아이가 잠자기 위해 누웠을 때 토라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베갯머리 교육의 시작이다. 이것 역시 얼마나 아빠가 아이와 짝을 지어 대화를 나누는 하브루타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유대인의 태교와 베갯머리 교육이 하브루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이가 잠들기 전에 책을 읽어 주는 것 역시 유대인 부모의 아주 중요한 일과의 하나다. 유대의 엄마들은 아이가 깊이 잠들 때까지의 짧은 시간을 이용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 주고 대화를 나눈다.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유일신 이야기를 들려준다. 아이가 그 뜻을 이해하는 것과 상관 없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들은 토라를 아이의 수준에 맞추어 이야기로 꾸며 들려주곤 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탈출해 홍해를 지팡이로 갈라 극적 탈출에 성공한 이야기, 아직 어린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돌팔매로 쓰러뜨리는 이야기, 사자를 맨손으로 잡는 삼손의 이야기 등 어린이들이 흥미롭게 들을 만한 이야기는 얼마든지 있다. 물론 토라에는 아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으므로 부모가 그것을 풀어서 쉬운 이야기로 만들어 들려준다.

이 토라의 이야기 가운데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영웅들의 이야기이다. 모세의 출애굽기, 다윗과 거인 골리앗의 이야기 등에 아이들은 열중하며 수천 년 전의 먼 역사를 한숨에 거슬러 올라가 마치 자신이 그곳에 있는 것처럼 상상력을 편다. 이런 베갯머리 교육은 아이들에게 풍부한 상상력을 심어 주게 된다.

토라의 영웅담을 들으며 느낀 흥분은 때로는 후일에도 지속되어 상상력이 풍부한 시인과 작가를 낳기도 한다. 유대인 중에 시인 하이네를 비롯하여, 프란츠 카프카, 토마스 만 등 상상력이 번뜩이는 작가가 많은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다. 더욱이 토마스 만의 장편소설은 단 몇 줄의 토라에서 테마를 얻어 써낸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이가 어릴 때 아이와 함께 한방에서 잠을 잔다. 매일 밤 8~10시간 정도 아이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가 깨면 부모도 깨게 되고, 부부생활에도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따로 재운다. 우리는 아이와 밤마다 함께 자면서도 애착에 어려움이 많은데, 유대인들은 따로 재우면서도 애착에 별 문제가 없다.

그 이유는 30분 정도의 베갯머리 교육에 있다. 베갯머리 교육의 가장 큰 위력은



아이가 잠들 때마다 부모의 사랑을 확인하고 자게 된다는 점이다. 매일 부모와 이야기를 나누며 축복을 받으면서 자게 되면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며 잠들게 된다. 유대인 부모와 자녀 사이의 안정된 애착의 비밀은 바로 이것이다.

베갯머리 교육은 자녀가 잠들기 전에 들려주는 동화나 이야기, 대화를 말한다. 유대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누구나 침대 머리맡에서 부모가 책 읽어 주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루를 마친다. 그들은 베갯머리 교육을 부모의 의무이자 전통적인 일과로 여긴다.

유대인에게 자녀들이 잠들기 직전의 시간은 아이들을 교육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며, 부모가 자녀의 일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시간이다. 이 시간은 부모가 자녀를 침대에 누이고, 그 곁에서 자녀가 잠들 때까지 함께 있어 주는 시간이다. 가족에게 투자하는 시간이고, 가족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시간이다.

베갯머리 교육의 중요성은 뇌로도 설명이 된다. 우리의 뇌는 잠을 자는 동안 저장해야 할 기억과 버려야 할 기억을 정리한다. 그 일은 해마가 하는데, 우리가 잠든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다. 해마는 낮의 상황을 기억해 두었다가 우리가 자는 동안 그 기억을 정리하고 축적한다. 그래서 자기 직전의 정보가 가장 잘 저장된다. 자기 직전에 하는 베갯머리 교육은 그래서 아이의 뇌에 가장 잘 저장된다. 특히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음을 직접 체감하면서 잠이 들기 때문에 애착 형성에 가장 좋다. 아이가 잘 때마다 부모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자게 되면 그 사랑의 확인이 뇌에 그대로 저장된다. 그런 아이는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동화를 들려준 뒤, 그 느낌을 이야기로 나누는 과정은 책을 읽어 주는 과정보다

훨씬 중요하다. 책을 읽어 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지만, 이야기를 나누기는 쌍방의 소통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질문은 아이들이 할수록 좋으며, 교육적 목적보다는 아이와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는다고 생각하고, 즉 수다를 떠는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이 좋다.



유대인 아이들은 혼자 놀기보다는 또래와 함께 노는 것을 즐긴다.

“내용이 어떻게 될지 내일 읽어 줄게. 그 다음 이야기를 상상해 봐.” 이렇게 말해서 다음 이야기에 대한 상상력을 키워 나간다. 무엇보다 책을 읽고 난 뒤의 느낌을 함께하는 순간이 중요하다. 책을 읽어 주고 나서 “느낌이 어땠어? 네 생각은 어때? 네가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니?” 같은 질문을 던지고 아이가 솔직하게 하는 말에 아낌없이 칭찬을 해 준다.

아이와 놀아 주어서는 안 되고 함께 놀아야 하듯이, 책을 읽어 주면 안 된다. 부모도 함께 읽어야 한다. 베갯머리 교육은 자녀에게 정서적인 안정감과 행복감을 주고, 책을 좋아하게 만들며, 언어 능력의 발달을 돕고, 상상력을 풍부하게 하며, 안정된 애착이 저절로 형성되도록 이끈다.

## ■ 하브루타 최고의 시간, 밥상머리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축일이 언제냐고 물으면 욀 키푸르 데이나 유월절이

라고 대답하지 않는다. 그들은 안식일(shabbat)이라고 대답한다. 그만큼 유대인에게 안식일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유대인들에게 하루는 해가 질 때 시작해서 다음 날 해가 지기 전에 끝난다. 정확하게는 저녁에 별이 세 개 뜰 때가 하루의 시작과 끝의 기준이다. 그래서 이들에게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이다. 토라에서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쉬도록 명령하고 있으며,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오랜 역사 속에서 단결을 유지해 왔다. 토라는 밭을 가는 행동과 수확하는 행동, 불을 피우는 행동 등 몇 가지를 일로 분류하고 안식일에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 탈무드는 서른아홉 가지를 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안식일에 전기 스위치조차 만지지 않는다. 유대인 가정에는 온갖 타이머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다. 저절로 전등이 켜지고 꺼지도록, 보일러가 켜지고 꺼지도록 타이머를 맞추어 놓는 것이다.

안식일에 이스라엘의 호텔이나 건물에 가면 유대인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다. 그 엘리베이터는 매 층마다 열리고 닫힌다. 30층 건물이면 30번을 서고, 문이 열리고 닫힌다. 그들은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하



유대인 가족들의 안식일 만찬 모습.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에 2시간에서 6시간 정도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눈다.

기 때문에 자동으로 서고 열리고 닫히도록 해놓은 것이다.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유대인들 가정에서는 안식일에 금지된 일을 대신 해 주는 샤베스 고이(Shabbes goy)라는 비유대인을 고용하기도

한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목숨으로 지켰고, 그 안식일은 유대인을 지켰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전통을 수천 년 동안 지속해 왔기에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유대인들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전통을 지속시켜 나갔다. 만일 안식일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2000년 만에 다시 세워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며, 그들은 이미 다른 민족에 흡수 동화되었을 것이다.

지금도 세계 어느 곳에 살든지 유대인 가정에서는 금요일 저녁이면 온 가족이 모여 안식일 식탁(shabbat dinner)을 즐긴다. 이를 안식일 만찬(shabbat meal)이라고도 한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금요일 저녁만은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를 확인하고 특별한 식사를 나눈다. 빵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주 긴 식사를 한다. 이들 유대인에게 안식일은 모든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의미를 갖는다. 떨어져 사는 식구들도 이날만은 함께 한다.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행복과 즐거움을 공유한다. 다음 주에 할 일에 대해 서로 대화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실컷 하는 것이다. 이것이 유대인에게 있어 가장 큰 행복이다. 어느 랍비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맞는 마음가짐은 마치 어떤 특별한 손님을 초대하고 그를 영접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가족 간의 유대가 깊어진다.

안식일 식탁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데, 핵심은 식사하면서 이루어지는 대화에 있다. 대화는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토라 하브루타이고, 다른 하나는 일상 하브루타이다. 토라 하브루타는 토라를 가지고 가족끼리 질문하고 토론하는 시간이고, 일상 하브루타는 일주일 동안 있었던



대화와 활동에 집중하고 있는 유대인 아이들. 대부분의 회당마다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일들을 온 가족들이 서로  
터놓고 대화하는 시간이  
다. 둘의 시간이 비슷하거  
나 일상 하브루타 시간이  
좀 더 길다.

밥상머리교육은 밥을 같  
이 먹는 것이 핵심이 아니  
다. 밥을 같이 먹어도 서로  
전혀 대화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것은 서로 따로 먹는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가 여자에게 관심이  
있어서 만나고 싶을 때 “커피 한잔 하실까요?”라거나 “식사나 같이 하실까요?”라  
고 말하는 것은 커피를 마시고 싶거나 밥을 먹고 싶어서가 아니다. 커피와 식사는  
대화를 매끄럽게 도와주는 도구일 뿐이다. 목적은 대화를 통해 서로 알아가는 것이  
지 커피나 식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밥상머리교육은 식구들이 밥을  
함께 먹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 사랑의 유대 관계를  
깊이 하는 데 목적이 있다.